

평창발 남북관계 ‘훈풍’ 광주·전남 민간교류 10년만에 기지개 켜나

시·도 교류사업 재개 준비

평창 동계올림픽이 물고 온 남북관계 훈풍에 10년간 끊겼던 광주·전남 대북 교류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잠시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북사업은 지난 2008년 평양 발효공 뺑공장 건설 지원이 마지막이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로 모든 대북사업이 중단되더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지속되면서 10년간 교류가 끊겼다.

그동안 광주는 문화·체육 교류를 중심으로, 전남은 농도의 특성을 살려 쌀·특산물 보내기를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펼쳐왔다. 전남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총 20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대북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점차 늘어났다. 전남도는 2017년까지 5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억~7억원을 출연했다. 지금까지 모은 기금은 34억원이다. 광주는 44억원이 모아졌다.

하지만 교류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기금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급기야 전남도는 지난해 기금 출연을 중단했다.

남북 교류 재개가 불투명한데 기금 출연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방침을 계기로 대북 교류 사업 재개가 검토되면서 전남도는 기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 활성화와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의 대북 지원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남북 관계 화해 분위기 속에 문화·스포츠·민간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형 남북 교류협력’ 모델을 만들어 대북교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2018광주비엔날레 북한 참관단 파견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추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한문화 특별전시전 개최 ▲양궁 등 스포츠 교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44억원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 압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북 화해무드에 따라 쌀·미역 보내기 등 인도적 지원의 대북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중단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당 반통합과 이달 말 신당 창준위 띄운다

박지원 의원 “합당저지 하면서 무게중심 신당 창당으로”

“2월 9일 이전 창당 마무리...합계할 의원 20명 넘을 것”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르면 이달 말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준위)를 띄우고 본격적으로 창당 준비에 돌입한다. 햇볕정책 등 핵심 정체성에서 뜻을 달리하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을 강행하는 안철수 대표와도 결별 수순이다.

<관련기사 4면>

박지원 의원은 1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최근 잇따

라 회의를 열고 1월 말께 창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의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2·4 임시 전당대회 전까지는 합당을 저지하는 노력도 강하게 벌여나가겠지만, 이제 무게중심을 신당창당으로 좀더 옮기는 것”이라며 “2월에 평창올림픽과 설 연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준위를 미리 띄워야

한다는데 의원들 뜻이 수렴됐다”고 전했다.

2·4 전대에 앞서 선제적으로 창준위를 띄워 세를 규합하고 전대 결과와 관계없이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2월 9일 이전에 개혁신당 창당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현재로서는 우리와 함께 할 의원들이 20명은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사정으로 곧바로 신당 합류가 힘들더라도 개문발차식으로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당 비용과 관련해서는 “창당 비용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당 창당하면 5월에 받게 될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면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합당 반대파 의원들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도 이날 ‘1월 말 창준위 가동’ 입장을 피력하는 등 박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합당 반대파 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2·4 임시 전당대회’까지는 최대한 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견이 있어 창준위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정신 헌법 수록·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서 지자체·교육청·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날인 17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코스닥 16년 만에 900선 돌파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세

코스닥이 근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를 타고 한 단계 더 올라섰다.

16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포인트(1.08%) 오른 901.23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2002년 3월 29일(종가 927.30) 이후 약 1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다. 장중 기준 900을 넘는 것도 2002년 4월 1일(장중 고가 924.40, 종가 877.00)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장 마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은 319조47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코스닥은 연일 시총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전날 890선을 돌파한 지수는 이날 2.38포인트(0.27%) 내린 889.23으로 개장했

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를 엮고 상승 반전했다. 이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름폭을 키워 장중 최고가로 마감했다.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외국인이 이날 444억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주식 ‘사자’에 나섰다. 여기에 올해 들어 코스닥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던 기관이 가세해 71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만 979억원어치를 팔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공화장실 휴지통 없었더니... ▶6면
전라도 천년 나주 의병장 김천일 ▶18면
KIA 김주찬 27억 재계약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무안공항 출발]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돗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2억원 영업보충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 **[폭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 **[폭격]** **769,000원**~
설 연휴 매일 출발 합니다.[2/14(수)~2/20(화)]
[폭격] 북 큐 슈 **998,000원**~
[폭격] 야마구치 **998,000원**~
야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
[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
[고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

무안 ↔ 돗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돗토리(12:20) / 돗토리(13:00) → 무안(14:20)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 **[폭격]** **678,000원** ~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 **[폭격]** **828,000원** ~
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폭격] 돗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후에·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준특급호텔 기준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극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동조: 여행경비·인건·교통·여행자보험·가이드·여행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동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충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현금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항공, 기차/기도, 뽕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